

'백두산' 폭발 막기위해 남과 북 뭉쳤다

이병헌·하정우·마동석·배수지 출연 영화 '백두산' 내달 개봉

이병헌-하정우 첫 만남에 압도적 스케일 재난영화에 극장가 접수 기대



배우 이병헌(왼쪽부터), 하정우, 전혜진, 배수지가 18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CGV에서 열린 영화 '백두산'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화기애애한 가운데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백두산'은 남과 북 모두를 집어삼킬 초유의 재난인 백두산의 마지막 폭발을 막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대한민국 관측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백두산 폭발이 발생한다. 갑작스러운 재난에 한반도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고, 남과 북 모두를 집어삼킬 추가 폭발이 예측된다.

배우 이병헌, 하정우, 마동석, 전혜진, 그리고 배수지가 '백두산' 폭발을 막기 위해 뭉쳤다. 이병헌 하정우의 첫 만남부터 압도적 스케일의 재난영화 장르까지, '백두산'이 12월 극장가를 접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압구정에서 영화 '백두산' (감독 이해준 김병서) 제작보고회가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이해준 김병서 감독을 비롯해 이병헌 하정우 전혜진 배수지 등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백두산'은 남과 북 모두를 집어삼킬 초유의 재난인 백두산의 마지막 폭발을 막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총 2600만 관객을 사로잡은 '신과 함께' 시리즈를 제작한 맥스터 스튜디오의 신작이다.

이병헌은 극 중 백두산 폭발을 막기 위한 결정적 정보를 손에 쥔

북한 무력부 소속 일급 지원 리준평 역을 맡았다.

이병헌은 이번 작품을 통해 생애 처음으로 북한 요원 역할을 연기한다. 그는 "러시아어, 중국어는 영화에 생각보다 분량이 많지 않다. 언어 선생님들이 촬영 있을 때 항상 당연히 오셨다. 러시아 촬영 들어가기 전에는 녹음을 부탁했다. 대사를 듣고 익숙해지도록 익혔다"며 "북한 사투리가 메인 언어다. 너무나 훌륭한 북한 사투리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몇 개 월동안 촬영장에 붙어있어서 많은 애길 해주시고 고쳐주셨다. 걱정했던 것 보다는 어렵지 않게 촬영을 끝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정우는 '더 테러 라이브' '터널' 등으로 '재난영화 장인'이라는 수식어가 있다.

하정우는 모두의 운명이 걸린 비밀 작전에 투입된 EOD 대위 조인창(하정우 분) 역으로 등장한다. 극 중 역할에 대해 그는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면서 북한에 2개 팀이 넘어가게 된다. 폭탄 해체반이 있고 그들을 호위하는 전투병이 있다"며 "조인창은 전투 호위까지

증책을 맡게 되는데 전투병 출신이 아니라 너무 어설픈 거다. 수많은 전투 상황에 놓이게 되고 난관에 놓이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리액션은 솔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무섭고 떨리고 겁먹고 어설픈 걸 극대화시키고 자연스럽게 연기하려 많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병헌과 하정우는 이번 영화로 처음 만났다. 먼저 이병헌은 "여러 가지 장르를 저는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재난영화 장르는 처음이었던 것 같다. 처음으로 해보는 재난 영화였다"며 "재난영화에서 놓칠 수 없는 스틸감 긴장감이 전반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읽을 때 단숨에 읽는 재미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또 하정우라는 배우와 함께 버디 무비 형식의 훈훈함이 있는 영화가 마음에 기대가 컸다"고 출연 이유를 덧붙였다.

하정우는 "재난영화라고 해서 행동이나 캐릭터나 말이 단선적이지 않아서 좋았다. 재난상황이라고 해서 인물들이 24시간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

런 부분에서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다 생각했다. 그 안에서 유머가 있고 솔직한 인물들의 대처 등의 모습들이 새로운 재난 영화가 아닐까 했다"며 "(이병헌과) 타키타카가 재난을 돌파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 너무나 큰 매력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배수지는 그 속에서 반드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최지영(배수지 분) 역을 연기했다.

그는 "극 중 재난은 실제로 경험 못했던 부분이라 걱정이 많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현장에서 실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몰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면서도 "흔사하는 촬영이 많아서 외로웠다. 선배님들과 같이 했던 촬영이면 힘이 많이 됐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배수지는 하정우와 부부로도 등장한다. 하정우는 "(수지와 부부로 출연하지만) 영화 처음과 끝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다"며 "수지씨가 캐스팅 됐다 했을 때 나이 차가 꽤 나서 잘 어울릴까 혼자 꽤 고민했는데 김용화 감독도 형수님과 나이 차이가 더 많이 나서 주변에서 말은 된다 해서 용기를 냈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이해준 감독은 이번 영화의 연출을 모험이라 표현했다. 그는 "'백두산'은 관측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의 화산이 폭발하면서 일어난다. 각자 위치에서 백두산 폭발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며 "한반도 시도하지 않았던 백두산 화산 폭발이라는 소재로 영화를 만드는 만큼, 새로운 시도와 볼거리가 있는 영화"라고 자신했다. 또한 이 감독은 "'백두산'의 구상은 7-8년 전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시나리오 집필까지 2-3년 걸렸다. 소재 먼저 찾고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영화는 몇 가지 전제에서부터 시작됐다. 첫 번째는 분명한 장르영화여야 했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할 소재여야 했다. 또한 세 번째로 압도적인 스케일 등 전제에서 소재를 찾기 시작했고, 구성을 찾아가다 보니 재난영화 틀을 갖추게 됐다.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영화인 만큼, 새로운 거대한 모험이 되지 않을까 중요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백두산'은 오는 12월 개봉한다.

'울킬' 아이유, 새음반 발매 소감 "고생한 것도 버틴 것도 네 덕분"

가수 아이유가 미니 5집 러브 포엠 (Love Poem) 발매 소감을 밝혔다.

아이유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라 #러브포엠. 고생한 것도 버틴 것도 네 덕분이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아이유가 피란 꽃을 배경으로, 꽃무늬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상큼한 미소와 살짝 눈을 감은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아이유는 18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러브 포엠'을 발표했다. 타이틀곡 '블루밍' (Blueming)은 19일 멜론, 지니, 벅스, 소리바다, 플로 등 음원차트 1위를 석권하고 있으며, 수록곡 '언터키' '시간의 바깥' '그 사람' '자장가' 역시 차



트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한편 아이유는 투어 콘서트 'Love, poem'을 광주, 인천, 부산에서 개최하고 11월 23~24일 서울 공연을 남겨 두고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대만, 싱가포르,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방콕, 자카르타 등 해외 투어를 진행한다.

뉴스1

서효림, 9세 연상 김수미 아들과 내달 22일 결혼·2세 임신 발표

배우 서효림(35)이 김수미의 아들이자 나팔꽃 F&B 대표인 정명호씨(44)와 결혼 소식을 발표함과 동시에 2세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서효림 소속사 마지그엔터테인먼트와 나팔꽃 측은 19일 "서효림과 정명호 대표가 오는 12월 22일 백년가약을 맺는다"고 일했다.

이어 "두 사람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힘이 되어준다. 진지한 관계로 발전해 사랑을 이어왔다"며 "변함 없는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서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약속하고, 양가 부모와 결혼에 대해 상의하는 과정 가운데 새 생명이 찾아왔다"며 "아직은 안정이 필요한 초기인 만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 조심스러운 상황에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 생명의 기쁨과 한 가정을 이루며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 해주시길 바라며, 함께 축하해주



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림과 정명호의 열애는 지난 10월 알려졌다. 당시 서효림 측은 "서효림씨가 김수미씨의 아들과 연애 중인 것이 맞다"라며 "서로 오랜 시간 알고 지내오다 최근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효림은 2007년 드라마 '꽃피는 봄이 오면'으로 데뷔했고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여인의 향기'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주군의 태양' 등에 출연했다. 서효림은 예비 시어머니인 김수미와 지난 2017년 MBC 드라마 '발상 차리는 남자'에서 모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또한 현재 방송 중인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도 함께 출연하고 있다.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좀비랜드:더블 탭
2관	엔젤 해즈 폴른
3관	신의 한 수-귀수편
4관	블랙머니
5관	신의 한 수-귀수편, 82년생 김지영, (더빙)마법안개의 비밀:황금 보물선을 찾아라
6관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
7관	블랙머니
8관	블랙머니, 82년생 김지영
9관	신의 한 수-귀수편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CGV 광주하남점

1관	신의 한 수-귀수편, 아담스 패밀리
2관	신의 한 수-귀수편, 82년생 김지영, 어쩌다 룸메이트
3관	신의 한 수-귀수편, 좀비랜드-더블 탭, 어쩌다 룸메이트
4관	블랙머니
5관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 엔젤 해즈 폴른
6관	블랙머니, 아담스 패밀리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